

저는 如來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의지로 如來님을 만나게 되었고,  
如來님의 충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충고를 최대한 받아  
들이고,  
주저하지 않고 제 힘이 닿을 수 있는 한계까지 열심히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전설 속의 청개구리로 표현하고, 如來님을 그 아버지라고 말  
하곤 합니다.

'부모 생전에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던 청개구리  
자식을 염려하던 부모는 죽음에 이르자 청개구리 자식에게 자신  
을 강에다 묻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야 산에다 장사할 것이  
라 여겼지만 청개구리 자식은 부모가 죽고 나서 그대로 강가에 묘  
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큰 비가 와서 묘소가 강물에 떠내려  
갔습니다. 그로부터 비만 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부모 생각  
에 개굴개굴 운다.'는 청개구리의 전설은 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되새기게 합니다.

청개구리의 전설은 장님들의 속성을 두고 지혜로운 자가 만든 깨  
달음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도서출판 자연의 가르침 사이트에 공개되는 如來님의 말씀과 글,  
행적들을  
아주 매우 관심 있게 유심히 심혈(心血)을 기울여서 관찰하셔야  
합니다.

한 문장 전체를 쉽게 읽으시면 해답을 찾는 일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의 뜻과 말씀의 의미를 일일이 추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如來님의 말씀과 글, 행적의 진실을 알아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如來께서 정반대로 하신 말씀과 글, 행적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끝내 성공에 도달하는 길에 돕겠습니다.

저는 도서출판 자연의 가르침과 수년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저를 지칭하는 별명을 도서출판 자연의 가르침에서 만들고 사용하는 일을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도(先導=leading)하거나 안내(案内=guide)하는 역할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如來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 자신도 사람들 앞에 나서면 맞이하 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염려를 하는 것은 지레 겁을 먹고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 직접 나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서출판 자연의 가르침이 끈질긴 요청을 제발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앞으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도 써야 할 책임감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 이 페이지는 도서출판 자연의 가르침이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공(主公=Guide)의 원고를 받아, 도서출판 자연의 가르침이 편집하였습니다.